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5:00 배포 2026. 11. 23.(월) 16:00

국가AI전략위, 창원지역 방위산업 현장 찾아 AX 가속화 방안 모색

-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위아 방문
- 국방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산 AX 가속화 방안을 모색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11월 24일(화) 경남 창원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5기술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방 해양기술 연구개발 현장과 무기체계 생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위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이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요 무기 생산현장 둘러보고, AI데이터센터 공사현장 점검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찾았다. 먼저 주요 사업 현황과 유무인복합체계(MUM-T, Manned Unmanned Teaming) 구현 방향을 소개받고, 주요 제품 생산라인과 실제 무기체계를 살펴봤다. 이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짓고 있는 45MW급 AI 데이터센터(AIDC)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여러 병력과 무기체계가 한 팀처럼 움직이려면 AI가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개발하고 운용하려면 AI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대위아] AI 기반 무기체계 기술수준과 제조공정 자동화 현황 확인

이어 찾은 현대위아에서는 대표적인 AI 무기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 Weapon System)와 대드론방어체계(ADS, Anti-Drone System)를 소개받고, AI가 앞으로 바꿔놓을 전장의 모습과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공장 곳곳에서 활용 중인 무인지게차, 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등을 살펴보며 제조 현장에서 AI가 하는 역할과 기술 수준을 확인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AI가 다수의 드론을 운용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AI 개발과 고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 자동화 로봇을 둘러본 뒤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기술로 제조업을 혁신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증 기반 마련 등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5기술연구원] 국방해양기술 개발현황 확인 및 격려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과학연구소 5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기관 소개와 함께 주요 국방 해양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AI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들었다. 하 부위원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하며, 앞으로 해양 분야 피지컬 AI 벨트의 핵심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창원 방문에서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방산분야 AX 가속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공공AI혁신팀	책임자	서기관	강병구 (02-2224-4161)
		담당자	중 령	안재희 (02-2224-4168)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